

#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선우\*

교수 김태현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im, Sun-Woo

Professor : Kim, Tae-Hyu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elderly men an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6 elderly (60 years and older), and they were all recruited in Seou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patterns of elderly men and women were affected significantly by background variables, self-esteem, and personality style. Second,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background variables, self-esteem, and personality style. Self-esteem was the major factor that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for all respondents. Third,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the impact of background variabl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pattern on marital satisfaction. For elderly me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were, in decreasing order, constructive communication, destructive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economic condition, whereas for elderly women, the factors were, in decreasing order, constructive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structive communication.

---

▲ 주요어(key words) : 의사소통 행동(communication pattern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자존감(self-esteem), 성격특성(personality style)

## 1.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오늘날의 가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충족을 중시하는 결혼관의 영향 등으로 인해 그 기능, 내용 상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로, 기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자녀 결혼 후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 둥우리 시기'가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빈 둥우리시기에 노년기 부부들은 가정내의 모든 문제를

생활의 변화에 맞게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정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8). 이러한 흐름은 노년기 부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해 학자들(김명자 1995; 김태현, 1994; Atchley, 1994)은 오늘의 노년기 부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주저자 : 김선우 (E-mail : minervasay@hotmail.com)

결혼 만족이나 갈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적해주고 있다(Rollings & Feldman, 1970). Clinebell(1991)은 의사소통이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고, 의사소통의 질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상적인 경험보고에서도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변인이 부부간의 대화방법과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Jacobson & Margolin, 1979). 이처럼 노년기의 결혼만족에 있어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노년기 이전의 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년기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경제상태, 가정 내 역할 수행,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 여가활동,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가족 내의 의사결정 변인들과 관련된 만족도만을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다(강미선, 1991; 김영나, 2000; 김혜경, 1996; Holman, 1988). 그러므로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이 상호관련되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의사소통 행동이나 결혼만족도는 개인 내적 특성과 대인간 변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내적 변인은 자존감, 성격특성과 같이 지속적으로 결혼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변인을 말하고, 대인간 변인은 의사소통과 같은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부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illon, 1979).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격특성 역시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시말해, 개인은 관계지향적이거나 자율지향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각자 다른 관점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 행동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Christensen, 1988).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 변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대인간 변인인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과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을 결혼만족도와 관련시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특성을 살리고, 이러한 변수에 남녀 노인의 개인적 특성들이 관련됨을 규명하여, 노부부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라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라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이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

#### 1)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부부관계 유형

의사소통은 인간이 언어적 행동이나 말 이외의 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한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를 상대와 공유하는 상징적 교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6).

부부 의사소통이란 남편과 아내사이의 상징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만족과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의 핵심이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ller & Fitzpatrick, 1990). 이와 함께 많은 연구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Adams(1980)는 남성은 자신이 해야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남녀간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권위지향적이고 지배지향적이며 분석적인 의사소통을 하였고(서수경, 이정미, 1991, 이경순, 1991), 여성의 경우는 소심지향적이고 희생지향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경순, 1991, 이창숙·유영주, 1988).

또한 선행연구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의 특징을 찾기 위해 유형화하여 왔다. 즉,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표출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거나(Haukins & Ray, 1977, 1980)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었다(송성자, 1985; Satir, 1972). 또한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상호건설적 유형, 상호회피 유형, 요구-철회 유형, 요구-철회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임승락(1998)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남편-요구/부인철회, 부인-요구/남편-철회, 전체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은 그들이 속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젊은이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적 상황에서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남녀간 권위구조가 과거 상당정도 유지되었으며(서병숙, 1998), 문화적인 영향으로 회노애락에 대한 표현이 적고, 자신의 계획마저도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경향(김영나, 2000)이 있다. 우리나라 남녀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의사소통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의사소통 유형이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한다. 즉,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행동과 상호간 문제에 대해 부부 둘 다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상호회피, 부부 갈등 상황에서 한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의논하거나 요구를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논의에 개입하지 않고, 논의를 중단하는 요구-철회, 부부 상호간 문제에 대해 위협,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손상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분류하여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의 관련 변인들

### (1) 배경변인

의사소통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 형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등의 배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그 상태가 좋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거나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김영나, 2000),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이상숙, 1989). 결혼지속년수에 있어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금옥, 1998)도 있었고, 결혼지속년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김화자, 1990)도 있어서 연구자마다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강희정, 1995, 송말희, 1986), 직업에 따라서는 남편의 직업이 하위직일수록 희생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한다고 한 선행연구가 있으나(송성자, 1985) 직업과 상관이 없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강희정, 1995, 김영나, 2000). 사회활동과 종교에 있어서는 공동여가활동 빈도가 많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199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관련 변인들의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 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연령, 교육수준, 건강, 경제상태,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 형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등에 따른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인간은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적, 인지적 상실, 가족, 친구의 상실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산업사회의 생산지향적인 풍토 또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순희, 1992).

자아존중감에 대해 학자들은 부부간 의사소통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illon, 1979). Satir(1972)는 자아존중감을 부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초로 파악하였으며, 의사소통체계나 맥락을 바꿈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도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서수경·이정미(199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권위형의 의사소통 행동 집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친숙형의 의사소통 행동을 하는 집단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에 따른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성격특성

Beck(1983)은 우울증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관계지향적(sociotropy)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말한다.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실에 민감하므로, 거절, 갈등,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대인관계사건을 경험하면 우울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에 자율지향적(autonomy) 성격특성은 개인적 영역의 안전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말한다. 자율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울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들은 직업,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성취적 사건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우울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자율지향성이 높은 이들은 개인적 영역의 안정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Beck(1988)은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성(closeness)을 추구하려 하고,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격리(distancing)되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배정희, 1996).

Christensen과 Heavey(1993)는 이러한 특성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행동과도 관련된다고 보았는데 그는 부부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철회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한 배우자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상대 배우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철회하거나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을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으로 분류하여 이 성격특성이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

### 1) 결혼만족도의 정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가능하는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Roach et al.(1981)은 결혼만족도가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시간적 차원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태도라고 보았다. 또한 Rollings & Feldman(1970)은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실제로 그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또는 현재의 결혼생활이 종결되었을 때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것 또는 현재의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만족스럽다고 고려되는 주관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수현, 1999, 이정은, 1999, 최규련, 1988). 이에 대해 허윤정(1997)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제의 전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보다 많은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결혼만족도를 주어진 시점에서의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의 관련변인들

### (1) 배경변인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관계되는 배경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등이 있다.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있고(김금옥, 1998, 정용재, 1985), 결혼만족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도 있다(이정은, 1999).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지적하였다(김수현, 1999, 김혜경, 1996)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대체로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태현·전길양, 1997, 이신숙, 1997).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허윤정(1997)은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송말희(1986)는 신혼기에 가장 높다가 결혼말기에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동거가족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김수현(1999)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직업,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olman, 1988). 종교와 결

혼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성호, 2001).

이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 경제상태,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등의 의미있는 변인을 선정하여 그 변인에 따른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linebell(1990)은 중년기를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아존중감과 생활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수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관념과 가치를 수정, 정립하는 것은 중년기 결혼생활 유지에 본질적인 요소라 지적하였다. 또한 Schwartz(1980)는 노인으로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녀야 하며, 자아존중감의 고양은 노후적응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국내연구에서도 개인내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설광석, 198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에 따른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성격특성

부부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부부관계는 그 사람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 갖는 우울감과 연관이 된다. 여기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성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이 관련될 수 있다. 정인파(1998)는 여자의 우울이 가정에서의 역할, 결혼문제와 관련된 불만족의 느낌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관계지향적인 성격특성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송양순(2000)은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 즉 경제사정의 악화, 신체적 질병,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 불가능과 우울이 관련이 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지향적인 성격특성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과 같은 성격특성은 노년기 변화에 따라 우울이나 만족과 같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은 우울 성향이 결혼만족과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each(1991)는 결혼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절반정도가 우울을 호소하고 있고, 우울한 사람들의 절반정도가 결혼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격특성에 따른 우울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의 성격특성을 살펴보고, 이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녀 노인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3.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사회와 일에서 은퇴하고 자녀양육에서까지 물러선 노년기 부부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 한층 의존하며,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같이 하게 된다. 이 시기의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의사소통 행동은 남녀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Jacobson과 Margolin(1979)은 고통받는 커플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의 부족은 가족생활의 붕괴와 같은 갈등적 관계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화자(199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은 결혼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남녀 노인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의미는 더욱 크고,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결혼생활의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년기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차이와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 1) 배경변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등의 10개 문항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5이었다.

#### 3) 성격특성 척도

성격특성 척도는 Robin, Ladd, Welkowitz, Blaney, Diaz, Kutcher(1994)가 수정한 Personal Style Inventory(PSIⅡ) 48문항을 1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PSIⅡ는 크게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두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관계지향성은 타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관심, 의존성, 타인 기쁘게 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자율지향성은 완벽주의/자기비판, 통제욕구, 방어적 분리의 세 하위척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신뢰도는 관계지향성이 .85, 자율지향성이 .83으로 나타났다.

#### 4) 의사소통 행동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를 임승락(1998)이 번안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개발자는 1988년에 상호건설적 의사소통(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 요구-철회 의사소통(demand-withdraw communication), 요구-철회 역할(demand-withdraw role)의 3개의 하위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Noller와 Fitzpatrick(1990)은 강압(coercion), 상호성(mutuality), 갈등후 고통(post-conflict distress), 손상적 과정(destructive process)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유형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 설문지(CPQ)의 다음의 4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긍정적 의사소통인 상호건설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의 3가지 유형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 유형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각각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84, 상호회피 .59, 요구-철회 .77, 손상적 의사소통 .84이었다.

#### 5)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 et al(1975)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합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배우자가 살아있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서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요원과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23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총 206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lt;표 1&gt;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

변 수	분 류	남자	여자	변 수	분 류	남자	여자	
		N (%)	N (%)			N (%)	N (%)	
연령	60~69세	84 (82.4)	82 (78.8)	결혼 지속년수	25~35년	40 (39.2)	28 (26.9)	
	70세이상	18 (17.6)	22 (21.2)		36~45년	47 (46.1)	51 (49.0)	
	평균	65.0년	64.5년		46년이상	15 (14.7)	25 (24.1)	
교육 수준	초등졸이하	17 (16.7)	51 (49.0)	동거가족 형태	부부	38 (37.3)	42 (40.4)	
	중졸	12 (11.8)	19 (18.3)		아들부부	13 (12.7)	10 ( 9.6)	
	고졸	40 (39.2)	22 (21.2)		미혼자녀	41 (40.2)	35 (33.7)	
	대졸이상	33 (32.4)	12 (11.5)		기타	10 ( 9.8)	17 (16.3)	
건강 상태	나쁘다	31 (30.4)	47 (45.2)	직업	없다	37 (36.3)	92 (88.5)	
	좋다	71 (69.6)	57 (54.8)		있다	65 (63.7)	12 (11.5)	
경제 상태	매우부족	9 ( 8.8)	11 (10.6)	사회활동	없다	49 (48.0)	56 (53.8)	
	약간부족	37 (36.3)	41 (39.4)		있다	53 (52.0)	48 (46.2)	
	알맞다	46 (45.1)	46 (44.2)		종교	무교	26 (25.5)	21 (20.2)
	여유있다	10 ( 9.8)	6 ( 5.8)			기독교	36 (35.3)	30 (28.8)
			천주교	15 (14.7)		25 (24.0)		
			불교	21 (20.6)		20 (19.3)		
			기타	4 ( 3.9)	8 ( 7.7)			
합계		102(100.0)	104(100.0)	합계		102(100.0)	104(100.0)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지속년수는 36~45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미혼자녀와 동거하거나 노부부만 사는 형태가 많았다. 직업의 경우는 남자노인의 2/3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노인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약 90%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50%정도가 사회활동에 참여했으며, 75~8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또는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이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살

펴보았고, 의사소통 행동 척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60대의 노인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층을 포함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부부를 한 단위로 보고 두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노년기 부부의 한 측면만을 다룬 한계가 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 검증

#### 1-1.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자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검증

남자노인의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남자노인의 경우 배경변인 중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직업, 종교와 자아존중감, 자율지향성의 성격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에 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남자노인 집단이 더 요구-철수 의사소통을 많이 함을 알 수 있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남자노인에게서 손상적 의사소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따른 의사소통은 상호회피와 요구-철수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경제상태가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고, '매우 부족하다' 고 지각하는 집단이 그 외의 집단보다 요구-철수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나

<표 2>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자노인의 의사소통 행동

배경변인(N)		남 자(N=102)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60~69세(84)	3.60	.67		2.35	.74		2.55	.49		1.88	.69	
	70대이상(18)	3.38	.62		2.56	.95		2.81	.40		2.15	.85	
t 값		1.32			-1.01			-2.43*			-1.44		
교육 수준	초등졸이하(17)	3.47	.71		2.53	.96		2.57	.42		2.04	.93	A
	중졸(12)	3.32	.56		2.58	.73		2.66	.57		2.27	.57	A
	고졸(40)	3.64	.61		2.34	.74		2.59	.49		1.78	.62	B
	대졸이상(33)	3.61	.74		2.30	.75		2.59	.50		1.94	.75	B
F 값		.89			.62			.08			1.67*		
경제 상태	매우부족( 9)	3.69	.48		2.44	.88	A	2.38	.64	A	1.97	.59	
	약간부족(37)	3.43	.72		2.65	.86	A	2.77	.49	B	2.03	.67	
	알 맞다(46)	3.64	.65		2.25	.64	AB	2.48	.37	B	1.83	.72	
	여유있다(10)	3.60	.70		2.00	.71	B	2.68	.64	B	2.00	1.04	
F 값		.79			2.87*			3.24*			.60		
직업	있다(65)	3.69	.71		2.17	.70		2.53	.50		1.78	.66	
	없다(37)	3.35	.53		2.77	.77		2.72	.44		2.20	.77	
t 값		2.71**			-3.92***			-2.03*			-2.76**		
종교	있다(76)	3.67	.68		2.31	.82		2.54	.51		1.85	.73	
	없다(26)	3.26	.54		2.62	.61		2.75	.36		2.18	.65	
t 값		3.11**			-2.03*			-2.33*			-2.22*		
자아 존중감	상(25)	4.12	.59	A	1.88	.73	A	2.43	.63		1.56	.73	A
	중(68)	3.40	.57	B	2.51	.72	B	2.65	.41		1.99	.65	A
	하( 9)	3.29	.78	B	2.83	.75	B	2.64	.49		2.53	.80	B
F 값		14.74***			8.94***			1.95			7.40***		
성격특성 관계 지향성	상(10)	3.74	.91		2.60	1.22		2.65	.79	A	1.83	.70	
	중(76)	3.53	.66		2.38	.73		2.64	.42	AB	1.92	.73	
	하(16)	3.60	.57		2.28	.71		2.36	.50	B	2.06	.73	
F 값		.44			.52			2.29			.38		
자율 지향성	상( 8)	3.38	.70		3.13	1.16	A	2.72	.60		2.47	.88	A
	중(76)	3.62	.67		2.35	.69	B	2.63	.41		1.89	.66	B
	하(18)	3.41	.66		2.22	.77	B	2.40	.69		1.86	.85	B
F 값		1.07			4.38*			2.00			2.48		

타났다. 직업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의 4가지 유형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직업이 있을 때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상호회피,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을 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노인에게 있어 직업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종교와 의사소통 행동 역시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곧, 종교가 있는 집단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다른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활동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부부공동의 시간이 늘어나고 부부적응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김영나, 2000).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 관계지향성의 두 차원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상, 중, 하 세집단으로 분류하여 의사소통 행동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손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상호회피를 덜 하였으며, 손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손상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구-철수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성격특성에서 자율지향성은 상호회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율지향성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보다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더 많이 나타냈다. Beck(1983)이 지적한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격리되려하는 경향이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 상호회피로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자노인들의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남자노인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직업과 종교가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이 더 많이 사용하였고, 상호회피는 경제상태가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직업과 종교가 없을 때, 자아존중감이 '중'이하인 집단이, 자율지향성이 '상'인 집단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요구-철회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경제상태가 약간 부족하거나 그보다 나은 집단이, 직업과 종교가 없는 집단이 이러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손상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직업과 종교가 없을 때,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이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여자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검증

여자노인의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여자노인의 경우 배경변인 중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와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의사소통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노인의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은 35년 이하인 집단과 36년 이상인 집단간에 상호회피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35년 이하인 집단은 아직 자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기이므로 상호회피하는 간접적 의사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고, 36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자녀의 성장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노년기 부부관계에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호회피하는 의사소통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은 손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 또는 '아들부부'와 동거하는 집단이 '미혼자녀와 동거' 또는 그 밖의 사람들과 동거하는 '기타집단'보다 손상적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부만이 사는 경우나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부만의 화제를 나누거나 아들부부가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손상적 의사소통이 감소하지만 미혼자녀와의 동거, 기타사람과의 동거는 부부이외의 다른 변수가 더 영향을 미쳐서 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상호회피를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을 덜 하였다.

성격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은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여자노인들의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자노인들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했고, 상호회피는 결혼지속년수가 35년 이하인 집단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요구-철회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집단이 이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적 의사소통은 동거가족형태가 부부 또는 아들부부인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이 손상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여자노인의 의사소통 행동

배경변인(N)	여 자(N=104)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			
	M	SD	D	M	SD	D	M	SD	D	M	SD	D	
결혼 지속 년수	35년이하(28)	3.14	.64		2.88	.63	A	2.80	.45		2.40	.66	
	36~45년(51)	3.45	.64		2.34	.78	B	2.71	.50		2.04	.78	
	46년이상(25)	3.41	.57		2.62	.63	B	2.69	.41		2.36	.81	
	F 값	2.29			5.19**			.47			2.67		
동거 가족 형태	부부(42)	3.52	.52		2.38	.71		2.65	.41		2.10	.74	A
	아들부부(10)	3.40	.48		2.80	.89		2.76	.53		1.68	.54	A
	미혼자녀(35)	3.21	.76		2.66	.76		2.84	.50		2.36	.72	B
	기타(17)	3.25	.66		2.62	.65		2.68	.45		2.51	.61	B
F 값	1.80			1.42			1.22			3.41*			
자아 존중감	상( 3)	3.73	.64	A	2.00	1.32	A	2.17	.14	A	1.08	.14	A
	중(74)	3.44	.62	AB	2.41	.69	AB	2.71	.45	B	2.09	.70	B
	하(27)	3.08	.60	B	3.02	.61	B	2.83	.48	B	2.69	.75	B
	F 값	3.97*			8.80***			3.09*			11.05***		

\* p<.05 \*\*p<.01 \*\*\*p<.001



2.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2-1.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남자노인의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

변인(N)		결혼만족도		
		M	SD	D
경제 상태	매우부족(9)	3.41	.69	A
	약간부족(37)	3.36	.62	A
	알맞다(46)	3.79	.66	B
	여유있다(10)	4.07	.91	B
	F 값	4.57**		
직업	있다(65)	3.81	.72	
	없다(37)	3.32	.58	
	t 값	3.77***		
사회 활동	있다(53)	3.77	.73	
	없다(49)	3.48	.67	
	t 값	2.13*		
종교	있다(76)	3.74	.75	
	없다(26)	3.30	.46	
	t 값	3.55***		
자아 존중감	상(25)	4.44	.58	A
	중(68)	3.40	.53	B
	하(9)	3.10	.44	B
	F 값	39.47***		
	성격특성			
자율 지향성	상(8)	3.03	.74	A
	중(76)	3.70	.68	B
	하(18)	3.59	.74	B
	F 값	3.41*		

\* p<.05 \*\*p<.01 \*\*\*p<.001

남자노인의 경우 배경변인 중 경제상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와 자아존중감, 자율지향성의 성격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대해 알맞거나 여유있다고 지각한 집단이 부족하다고 지각한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직업이 활기찬 노후생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활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사회활동을 하는 집단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가 있는 집단이 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종교는 죽음에 가까운 노인에게 정서적 위안의 역할을 하며 은퇴후 노후적응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과 '중'이하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격특성 중 자율지향성은 '상'인 집단과 '중'이하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율지향성이 '중' 또는 '하'인 집단이 '상'인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남자노인들의 경제상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 자아존중감, 자율지향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자노인들의 경제상태가 '알맞다' 이상으로 여유로울 때, 직업과 종교가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높을수록, 그리고 자율지향성이 대체로 높지 않은 집단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여자노인의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

변인(N)		결혼만족도		
		M	SD	D
교육 수준	초등이하(51)	3.17	.64	A
	중졸(19)	3.61	.68	B
	고졸(22)	3.28	.53	B
	대졸이상(12)	3.60	.58	B
	F 값	3.09*		
결혼지속 년수	35년이하(28)	3.11	.50	A
	36~45년(51)	3.49	.64	B
	46년이상(25)	3.24	.71	B
	F 값	3.64*		
자아 존중감	상(3)	4.53	.53	A
	중(74)	3.43	.59	B
	하(27)	2.90	.46	B
	F 값	16.19***		

\* p<.05 \*\*p<.01 \*\*\*p<.001

여자노인의 경우 배경변인 중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초등졸 이하의 집단과 중졸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중졸이상인 집단이 초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Blood와 Wolfe(1960)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보다 용이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김화자, 1990, 재인용)가 이를 지지해준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35년 이하인 집단과 36년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

지속년수가 36년 이상인 집단이 35년 이하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자노인의 경우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과 '중'이하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관계지향성이나 자율지향성의 특성이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자노인들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자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중졸이상인 집단이, 결혼지속년수가 36년 이상인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이 남녀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이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3인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연구문제 2에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독립변인을 제거한 후,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 I에서는 배경변인인 경제상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모델 II, 성격특성을 추가한 모델 III, 의사소통 행동을 추가한 회귀식이 모델 IV이다. 한편,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모델 I에서 배경변인 중 교육수준과 결혼지속년수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모델 II, 의사소통 행동을 추가한 회귀식을 모델 III로 분석을 하였다.

3-1.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남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배경변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23.3%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남자노인의 경제상태( $\beta = .256, p < .01$ ), 직업( $\beta = .218, p < .05$ ), 종교( $\beta = .214, p < .05$ )의 순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의 경제상태

<표 6>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이 남자노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배경변인</b>								
경제상태	.231	.256**	.074	.082	.073	.081	.146	.162*
직업 <sup>1)</sup>	.321	.218*	.274	.186*	.267	.181*	.067	.046
사회활동 <sup>2)</sup>	.132	.093	.065	.046	.066	.047	.066	.046
종교 <sup>3)</sup>	.348	.214*	.134	.082	.129	.079	.062	.038
<b>자아존중감</b>			.753	.540***	.751	.538***	.292	.209**
<b>성격특성</b>								
자율지향성					-.031	-.028	-.079	-.073
<b>의사소통 행동</b>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377	.354***
상호회피							-.103	-.112
요구-철수							.141	.097
손상적 의사소통							-.261	-.265**
Intercept		2.507		.298		.416		1.324
F 값		7.36***		16.62***		13.75***		19.28***
R <sup>2</sup>		.233		.464		.465		.679
R <sup>2</sup> 증가량				.231		.001		.214

\* p<.05 \*\*p<.01 \*\*\*p<.001

주1) 직업 유1, 무0으로 가변수 처리

주2) 사회활동 유1, 무0으로 가변수 처리

주3) 종교 유1, 무0으로 가변수 처리

가 좋을수록, 직업이 있을 때, 종교가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번째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46.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3.1%의 증가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beta=.540, p<.001$ )과 직업( $\beta=.186, p<.05$ )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직업이 있을 때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을 추가하였는데 설명력은 46.5%로 전체적으로 0.1%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기에서도 자아존중감( $\beta=.538, p<.001$ )과 직업( $\beta=.181, p<.05$ )이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특성에 따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행동이 추가된 모델 IV에서는 설명력이 67.9%로 전체적으로 21.4%의 증가를 보였으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beta=.354, p<.001$ ), 손상적 의사소통( $\beta=-.265, p<.01$ ), 자아존중감( $\beta=.209, p<.01$ ), 경제상태( $\beta=.162, p<.05$ )가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손상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남자노인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에서 효과가 사라진 변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황적 변수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상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손상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경제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2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서도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첫 번째 모델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7.6%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의 교육수준( $\beta=.304, p<.01$ )과 결혼지속년수( $\beta=.233, p<.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는데, 설명력이 42.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4.7%의 증가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beta=.606, p<.001$ ), 결혼지속년수( $\beta=.187, p<.05$ )의 순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을 추가한 모델 III에서는 설명력이 73.2%로 전체적으로 30.9%의 증가를 보였으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beta=.448, p<.001$ ), 자아존중감( $\beta=.277, p<.001$ ), 손상적 의사소통( $\beta=-.189, p<.05$ )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손상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여자노인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 번째 모델에서 사라진 결혼지속년수는 남자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행동 중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손상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이 지각한 결혼만족도에는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높은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손상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적게 이루어지는지가 결혼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7>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의사소통 행동이 여자노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beta$	B	$\beta$	B	$\beta$
<b>배경변인</b>						
교육수준	.179	.304**	.088	.148	.028	.048
결혼지속년수	.208	.233*	.166	.187*	.026	.029
자아존중감			.840	.606***	.384	.277***
<b>의사소통 행동</b>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451	.448***
상호회피					-.117	-.136
요구-철수					.038	.028
손상적 의사소통					-.157	-.189*
Intercept	2.566		-.097		.912	
F 값	4.13*		24.46***		37.54***	
R <sup>2</sup>	.076		.423		.732	
R <sup>2</sup> 증가량			.347		.309	

\* p<.05 \*\*p<.01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성격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방향은 의사소통 행동을 중심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었고, 다른 방향은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른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는 배경변인 중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직업, 종교와 자아존중감, 자율지향성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자노인은 배경변인 중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와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각각의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를 보였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에서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은 주로 경제상태, 직업 등의 가정 외부와 관련된 성격적인 일들과 이를 인지하는 자율지향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여자노인은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형태와 같이 가정 내적인 요인들에 따라 의사소통 행동 유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 노인 모두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아존중감에 따른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있어서 남자노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관계적인 욕구를 가지며, 거절에 민감한 것과 연관이 있다(Moffitt, 1986)는 것과 관련지어볼 때, 요구-철회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남녀 노인들의 의사소통 행동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에는 성차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배경변인, 자아존중감, 성격특성에 따라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의 경우는 배경변인 중 경제상태, 직업, 사회활동, 종교와 자아존중감, 자율지향성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자노인의 자율지향성과 결혼만족

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자율지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노년기가 되면서 겪게 되는 은퇴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 건강 약화 등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덜 심각하게 느끼는 성격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는 초기 노년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취와 관련된 자율지향성이 낮은 사람이 결혼만족에 더 큰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남자노인의 특징을 고려해 은퇴적응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자노인의 경우는 배경변인 중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와 자아존중감에 따라 집단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자노인들에게는 장기적인 결혼생활만족을 얻기 위해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책임감, 동정,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만족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자노인의 성격적 특성은 결혼만족도에 크게 관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점수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변수의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집단 모두 대체로 자율지향적이며, 관계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대상자들이 초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지만 경로대학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비교적 결혼만족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동질화된 집단이어서 결혼만족도의 영향변인들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는 남자노인의 관계지향성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녀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먼저 남자노인의 경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손상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경제상태의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격특성은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노인의 경우에도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손상적 의사소통의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남녀 노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개인의 배경적인 요인이나 성격적인 특성보다는 노인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에 관한 것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는 손상적 의사소통이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요구-철회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들(Christensen & Shenk, 1991; Christensen & Sullaway,

1984)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년기 부부들은 언어적인 방법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생활년수가 증가할수록 대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근후·이동원, 1973)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과 같은 남녀 노인들은 언어적인 요구-철수 의사소통 보다는 비언어적인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노인의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은 부부 상호간에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건설적인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년기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타협하는 부분이 미숙하고, 부부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차단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녀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자노인에게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부부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며, 여자노인에게는 참고 견디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상호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노년기의 의사소통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행동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혼기부터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과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에 있어서 공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시각을 전환시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지식, 정보, 경험 등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노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내의 노인정, 노인학교 등을 이용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정책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노년기가 되면서 그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남녀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남자노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적인 면에 영향을 덜 받는 자율지향적인 성격특성을 가졌을 때 결혼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자노인의 취약한 성격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들에 비해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은 우울증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울증의 성격특성 요인을 낮출 수 있는 여자노인을 위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년기 부부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상담에 대한 홍보와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접수 일 : 2003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16일

#### 【참 고 문 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정(1995). **도시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 김금옥(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95). **여성의 중년기-과연 위기의 시작인가? 중년기 여성의 삶** 한국가족학회, 5-20.
- 김수현(1999).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나(2000).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교문사.
-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7(2), 167-182.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중, 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희(1996). 성격과 생활사건의 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서수경·이정미(1991).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8(2), 199-215.
- 설광석(1987). 자아개념과 결혼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말희(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양순(2000). 재가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후·이동원(1973). 도시가족내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논총*, 22, 이대 한국문화 연구원.
- 이상숙(1989).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1992). 일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7(2), 70-85.
-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유영주(198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남편과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5.
-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 :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파 외(1998). 노인우울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03-111.
- 최규련(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윤정(1997).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B. N.(1980).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301-303.
- Atchley R. C.(1994). Family, Friend and Social Support. *In Social Forces & Aging(7th)*, 177-288.
- Beach, S. R. H., Sandeem, E. E. & O'Leary, K. D.(1991).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Basic Books.
- Christensen, A.(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3).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conflict: The demand - 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S. Oskamp & M. Costanzo(Eds.),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113-141), Newbury Park, CA: Sage.
- Christensen, A. & Shenk, J. L.(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risten, A. & Sullaway, M.(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 Clinebell, H. J.(1991). *Wellbeing*. Sanfrancisco, California: Harper.
- Dillon, J. L.(1979). *Marital communication and its relation to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Haukins, J. A., Weisberg C. & Ray D. W.(1977). Marital communication &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Holman, T. B.(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Jacobson, N. & Mar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Moffit, P., Spence, N. & Goldney, R.(1986). Mental health in marriage: The roles of need for affiliation,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68-76.
- Noller, P. & Fitzpatrick, M. 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Roach, A.J., Frazier, L.P. & Bowen, S.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71-282.
- Robin,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 Kutcher., G.(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1.
- Rollings. B.D.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0-27.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 Satir, V.(1972). *People making*.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 Inc.
- Schwartz, R. C.(1980).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style, self-esteem, and the couple communication of married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